

# “공격수 보강 우승 재도전”

### 박항서 감독 전남과 2년 재계약 “과태취 이적 댄 미드필더 영입”

박항서 감독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15일 박항서 감독과의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2007년 12월 허정무 감독에 이어 지휘봉을 잡은 박 감독은 다시 2년을 보장받으면서 2011년까지 전남의 사령탑을 맡게 됐다.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은 지난달 K-리그 성남과의 준플레이오프에 앞서 “박항서 감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을 6강으로 이끌었고 전남의 유소년클럽 시스템을 통해 성장한 젊은 선수들을 과감히 기용하는 등 구단 운영방침을 잘 이해했다”며 일찌감치 박 감독과의 재계약 의사를 밝혔었다.

부임 첫 해인 2008년 삼성하우젠컵 준

우승을 이끈 박 감독은 올 시즌 주전들의 부상과 이천수 이적과 동 등의 악재 속에서도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으로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하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재계약이 논의가 끝나면서 최종 목표인 우승을 향한 박 감독의 팀 전력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박 감독은 외국인 공격수 영입으로 공격력 강화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박 감독은 “올 시즌 맹활약을 한 슈바가 내년까지 2년 계약이 되어 있어 외국인 공격수 1명을 보강할 것이다”며 “슈바로 집중되어 있던 공격루트를 다변화시킬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전력 구성의 변수는 ‘골 넣는 수비수’ 과태취다. 일본 J-리그 교토 퍼플상가로



의 이적을 계획하고 있는 과태취의 움직임에 따라 박 감독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된다.

박 감독은 “과태취 이적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잔류를 한다면 상관없지만 이적이 확정될 경우에는 경험있는 미드필더를 영입할 것이다”며 “팀 전력이 많이 안정됐지만 실점을 줄여야 하는 만큼 수비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시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는 내년 1월4일 광양 훈련으로 시작된다.

박 감독은 국내에서 4주간 훈련을 진행한 뒤 외국으로 나가 4주 동안 전지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초 클럽 월드컵 챔프를 향하여

지난 13일(한국시간) 2009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4강에 진출한 포항 선수들이 16일 에스타두안테스(아르헨티나)와 경기를 앞두고 알 와다 아카데미 구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산구청 정진희 ‘태권여왕’

### 전국 태권도대회 57kg급 우승

‘태권남자’ 정진희(광산구청)가 전국남녀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에서 우승했다. 정진희는 16일 전북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7KG급 결승에서 현 국가대표 남진아(한국체대)를 6-2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국가대표 선발예선전을 겸했던 이번 대회 우승으로써 정진희는 내년 2월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 결선에도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정진희는 왼발 돌려차기와 뒷차기로 기선을 제압하며 시종 여유있는 경기를 펼쳤다.

2라운드까지 4-1로 앞서나간 정진희가



3라운드에서 경고 2개를 받아 1실점했으나 2점을 추가해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8강전에서 홍수연(용인대)을 누르고 4강에 오른 정진희는 고교선수 최다혜(리라아트고)를 8-0 RSC 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59kg급에서 우승했던 정진희는 지난 5월 여성부장관기 대회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태권여왕의 자리를 확실히 굳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100연승!

### 美 주립대 여배구팀 대기록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여자 배구팀인 레이디 라이온스가 미국대학스포츠 각 종목을 통틀어 사상 두 번째로 긴 10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NCAA 여자배구 1부리그 1번 시드를 받은 레이디 라이온스는 지난 13일 64강 라운드 준준결승에서 9번 시드의 캘리포니아대학을 3-0으로 완파하고 2007년부터 이어온 연승 기록을 ‘100’으로 늘렸다.

이는 1957~1964년 마이애미 대학 테니스팀이 작성했던 NCAA 연승 최고기록(137연승)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라고 AP통신이 15일 전했다.

레이디 라이온스는 18일 준결승을 치르고 여기서 이기면 미네소타-텍사스 간 승자와 결승에서 만난다. /연합뉴스

# 2010 아시안게임 사령탑 겸임 홍명보 감독 “23세이하 최고의 선수로 팀 구성”

“선수들의 군 문제가 걸려 있는 아시안게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 대표팀을 꾸릴 생각이다.”

올림픽 축구대표팀과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령탑을 겸임하게 된 홍명보(40) 감독은 15일 중책을 함께반에 맡은 것에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남 기술위원회를 열어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대표팀 지휘봉을 홍명보 감독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으로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끝난 뒤인 내년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치러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사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선수들의 병역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올해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젊은 태극전사들을 이끌고 8강에 오르는 패거리를 이룬 홍명보 감독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오는 1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일본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준비 중인 홍명보 감독은 “아시안게임 감독을 겸임하게 돼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수들의 군 문제가 걸린 만큼 맡은 최상의 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아시안게임 대표팀 구성과 관련해 “23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20세 이하가 들어가 보완하는 등 최고의 선수들을 뽑을 생각이다. 내년에 월드컵이 있어 성인 대표팀과 겹치지 않으면서 최상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대표는 23세 이하로 구성되며 세 명을 와일드카드로 낙점할 수 있다.

지난 14일 경남 남해에서 대표팀 선수들을 불러 모아 경남FC와 연습경기를 포함해 훈련을 지휘한 뒤 전남 창원으로 이동한 홍명보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휴가를 다녀오고 바로 대표팀에 소집돼 몸이 완전하지 않은 반면 일본 선수들은 J-리그가 끝나자마자 동아시아게임에 참가해 실전 감각이 살아 있다. 남은 기간 연습경기 없이 실전 훈련과 자체 경기로 전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네덜란드 TV “히딩크, 北 축구 감독직 제의 거절”

‘축구 명장’ 거스 히딩크(63) 러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북한의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네덜란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풋볼 인터내셔널’은 히딩크 감독은 러시아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분선 진출이 좌절된 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조선축구협회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슬로베니아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고 나서 황폐함과 실망감에 휩싸였다”며 “남아공 월드컵에서 내게 감독직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모두 거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슬로베니아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에서 패하고 나서 황폐함과 실망감에 휩싸였다”며 “남아공 월드컵에서 내게 감독직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오면 모두 거절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신문신문계**

16일(수)

- ▲09/10 V리그(KEPCO45 : 현대캐피탈) (18 : 40·KBS n스포츠)
- ▲09/10 프로농구(삼성 : 모비스)(18 : 50·MBC ESPN) (KT&G : 동부)(19 : 00·SBS스포츠)

# 국내서 세계 유도 최강 가린다

### ‘수원 월드 마스터스’ 개최

### 내년 1월16일부터 이틀간

내년 1월 수원에 세계 유도 최강자들이 몰려온다.

대한유도회는 내년 1월 16~17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각 체급 세계랭킹 16위 안에 드는 선수들이 참가해 최강을 가리는 ‘수원 월드마스터스 2010’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

마스터스는 올림픽과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다음 가는 권위 있는 대회로 한국에서 마스터스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유도연맹(IJF)은 세계랭킹을 매길 때 올림픽 우승자에게는 600점, 세계선수권은 500점, 마스터스는 400점을 준다.

이번 대회에는 남녀 총 14체급 경기가 열리며 총상금은 20만 달러다. 각 체급 1위에는 6천 달러를 준다.

/연합뉴스

# 한국체육학회장 이종영씨

이종영 한국체대 교수가 제22대 한국체육학회장에 선출됐다.

이종영 교수는 14일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한국체육학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 1천 451표 가운데 742표를 얻어 학회장에 선출됐다. 서울대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한 이종영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체대 대학원장을 거쳐 기획실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퍼시스 쇼룸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 최고의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만나세요

**퍼시스**

FURSYS | TEETS | UOON